

“전북·경남까지 아우른 L자형 첨단과학 벨트 구축하겠다”

전남도, 방사광가속기 유치 계획서 과기부 제출...유치 전략은?

전남도가 지난 29일 '전남 나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민선 7기 전담도가 정부의 방사광가속기 구축대상지 공모 사업을 2020년 도정의 최대 현안으로 삼고, 김영록 전남지사를 중심으로 전·실·국·이 참여한 원팀을 꾸려 타 시도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전에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광주는 물론 전북까지 공동전선을 형성시켜 '호남 유치'라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향후 광주·전남·전북의 주요 사업을 교차 지원하기로 하는 등 지역연대감이 크게 높아진 점도 이번 유치전의 부수적인 효과였다.

전남도는 방사광가속기를 반드시 유치해 전북을 시작으로 광주·전남, 경남까지 아우른 L자형 첨단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축할 계획이다. 국책대형연구시설인 방사광가속기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구축해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 깔렸다.

나주는 방사광가속기 설치에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지형으로 꼽히는 단단한 화강암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미래 확장성과 발전 가능성이 커 방사광가속기 구축의

화강암 기반·미래 확장성

전남 나주가 구축 최적지

균형발전 관점 평가 지표 필요

최적지로 꼽힌다고 전남도는 강조했다.

정부의 대상지 선정 평가는 ▲제공 부지, 진용 편이성 등 기본 요건 ▲지질·지반 안전성, 배후 부지 정주 여건, 확장 가능성 등 입지 조건 ▲행정·법적, 재정지원 방안 등 지방 자치단체 지원 등에 대해 발표평가와 현장 확인 절차로 진행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는 오는 7일로 알려져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부지 안전성과 이용·활용 편의성, 미래 확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유치계획서)작성했다”며 “나주가 타 시도에 비해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해 발생하는 X-선을 이용,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물질의 기본입자를 분석하고 관찰하는 초정밀 대형 현미경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의료·바이오·에너지·소재 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신기술

과 신시장을 창출한다. 정부는 오는 2028년 운영을 목표로 2022년부터 국비 8000억원 등 1조원대 사업비를 투입해 4세대 방사광 가속기 및 부속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운영 또는 구축 중인 가속기 5기 가운데 포함에만 2기(3·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운영 중이다. 전남도의 경쟁지인 충북 오창의 경우 불과 39km 떨어진 대전에 1조4000억원짜리 중이온가속기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광주에는 2012년 양성자가속기가 이미 들어섰고, 부산에는 2023년까지 중입자가속기가 구축된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해의 주요국이 지진 등 재해 위험으로부터 대형국책연구시설을 지키려고 분산 배치하는 것 과도 동떨어진 정책적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호남권을 제외한 영남·충청권에 대형국책 연구시설인 가속기 5개가 쏠려있고, 이마저도 상당수가 포함공대 발전 등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공모 방식이 아닌 정부·정책 결정에 따른 입지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번 공모에서는 국토균형발전 관점을 주요 평가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호남지역 곳곳에서 제기된 바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오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관련 긴급상황보고를 받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 “코로나19·화재 슬픔 이겨내고 새로운 일상 만들 것”

“이천화재 막중한 책임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자비의 마음이 우리의 힘이고 희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님오신날인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극복하고 이천 화재의 슬픔을 이겨내며 반드시 우리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불교는 국민 극복을 위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셨고 아픔을 나눠주셨다”며 “지금도 ‘청정 사찰 실천’으로 사회적 거

리투기를 계속하면서 감염병 극복에 앞장 서주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자들은 기부와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을 보듬고 스님들은 보시를 받들며 지친 의료를 위해 템플스테이를 무료로 개방했다”면서 “불교계의 따뜻한 마음은 언제나 국민에게 힘이 되고 있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불교계의 이런 노력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와 사랑을 스스로 행하는 그때 그곳이 부처님이 오시는 자리”라는 법장 스님의 말씀처럼 기쁨과 희망, 슬픔과 격정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매일매일이 부처님오신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발생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두

고 “많은 분이 희생됐다”면서 “코로나19 극복에 모두 애쓰는 중에 불행한 일이 생겨 안타깝고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을 깊이 애도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면서 “진화와 구조에 애써주시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님오신날 아침,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고 유가족을 위로해주시길 바란다”며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부처님의 ‘대자대비’로 아픔이 치유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신용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지급하나

긴급지원가구 신청 없이 현금

기한내 신청 안하면 자동기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연연금 지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가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

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나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조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 등에는 제한을 둔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통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사용 기한에도 제한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000원 등 모두 16만5000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연합뉴스

5월 한달 전남지역 곳곳서 5·18 40주년 기념 문화행사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5월 한 달 전남 곳곳에서 진행된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안, 애초 계획됐던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는 치르지 않는다.

전남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지난 30일 “오는 15일 무안군 전남도청 김영량 문 앞 광장에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5·18 전남 행사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 대응 지침을 준수

하며 기념식을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념식에서는 1980년 당시 광주 금남로에 자리 잡았던 옛 전남도청 현관을 복원하는 제막식도 진행된다.

남양 중앙공원에서는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오월 미술전 ‘붉은 땅, 나무에 꽃 피우다’가 열린다. 광주·전남에서 활동하는 33명의 예술가가 1980~1990년 저마다의 방식으로 투쟁에 나선 선배 민중 예술가들을 기리는 전시회다. 청년 세대가 바라보는 5·18을 표현한 UCC 영상 공모전과 청소년들의 5·18 주제 미술 공모

전, 전국 사진 공모전도 각각 진행된다.

5·18 행사위 관계자는 “그동안 준비해 온 대규모 기념행사를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워 행사를 현실에 맞게 사업 내용을 수정했다”며 “조건에 맞게 5·18 40주년 기념행사를 최대한 알차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사위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도민 난장’, ‘도민 대행진’, ‘내일로 콘서트’ 등 도민 집중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20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평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겨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